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 완료

지질전문가들, 3박4일간 현장 평가
핵심 지질명소 해설사 배치 등 호평
두번째 재인증 도전...내년 4월 발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마무리됐다.

광주시·전남도·화순군·담양군은 지난달 28-31일 3박4일간 진행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2018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 재인증을 거쳐 두 번째 재인증 도전을 위한 것이다.

현장실사에서는 무등산 정상부, 운주사,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핵심 지질명소에 대한 해설사 배치와 보존관리 이행, 지난 4월 지오발리지로 지정된 평촌마을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이 심사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



지난달 28-31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가 열린 가운데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의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의 타나(Ta Na) 실사위원이 참여했다. (광주시 제공)

인 일본의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의 타나(Ta Na) 실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는 올해 1월 말 제출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신청서 내용 확인 및 지질

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현장을 돌아보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의 섬 '완도 여서도' 해양영토 순례

도, 7-8일 110명 섬·바다 가치 체험

전남도가 오는 7-8일 완도 청산도 부속섬 여서도(사진) 일원에서 일반인과 학생 등 110명이 참여하는 해양영토 순례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해양 자유 1번지인 완도에서의 해양자유 체험과 영해기점 유인도인 여서도 해상 순례를 통해 섬과 바다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고찰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남대학교 실습선 '새동백호'에 승선해 여서도 앞바다를 항해하며 국토 외곽 먼 섬의 의미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완도 해양자유센터 체험, 전문가 토론, 여서도 영해기점 퍼포먼스, 어로작업 참관 및 조타실 견학, 해양영토 특강, 완도사랑 퀴즈, 제(해) 섬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채로운 체험과 활동이 준비됐다.

박영재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영토 순례를 통해 섬과 바다의 가치가 미래 성장동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자 한다"며 "이러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5여수세계섬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서도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선정한 '2025 올해의 섬'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남단에 위치한 전남의 대표 섬이다. 기암괴



석이 어우러진 해안 절경, 다양한 난대림 수종, 300년 넘게 이어진 전통 돌담길,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간직한 섬 생태의 보고로서 가치가 주목 받고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농기센터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광주 농업기술센터는 3일 "농식품 및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9월1일까지 센터 스마트농업교육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또는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이 있는 광주시민으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4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1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기자

도, 철강·석유화학 위기근로자 지원 착수

2년 이내 관련 기업 근무·실직자 대상
취업성공·기숙사임차지원 등 4개 사업

전남도는 3일 "경기 침체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은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 4개로 구성됐다.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최근 2년 이내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실직한 근로자 약 2천800명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2년 이내 철강·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5천700여명(여수·순천·광양)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이다.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여

수)은 모집 첫날인 지난 1일 모집인원 1천70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후 신청자는 예비 후보자로 접수하며 먼저 접수한 신청자가 탈락하면 신청 자격을 승계하게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지원국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 지역서점과 함께 '책문화 축제' 연다

이달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 8월 한 달간 지역서점 10곳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책 읽는 문화생태

계 조성과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거점 육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여 서점은 ▲책과위스키이상 ▲책과생활 ▲완벽한오늘 ▲동네책방 숲 ▲이것은서점이 아니다 ▲씨앗과움 ▲어린이서점 키트키트 ▲지역책방 ▲리브앤프리 ▲파종모종 등 총 10곳이며 각 서점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문화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시 낭독회, 북토크, 영화상영, 독서모임 등 형식과 주제를 달리한 10개 행사로 구성됐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서점 프로그램이 일상 속 문화 접점을 넓히고 지역 서점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인문도시 광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서점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